

냉전 연구의 탈중심화를 향하여

[서평] 오드 아르네 베스타 저,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역
(2020), 『냉전의 지구사 —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에코리브르, 814쪽.

류 기 현*

흔히 냉전기는 ‘차가운(冷) 전쟁(戰)’이라는 그 명명에서 드러나듯 물리적인 교전 없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정치적 긴장이 팽배했던 시대로 이해되곤 한다. 냉전사가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미국과 소련이 상호간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종의 ‘안정상태’를 구축했다는 의미에서 냉전기를 ‘장기 평화’(long peace)의 시대라고 지칭한 바 있고, 메리 칼도(Mary Kaldor)는 냉전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핵무기를 매개로 전면전의 위협을 유지하며 평화적 상태를 이어가는 ‘상상의 전쟁’(imaginary war)을 치렀다고 보았다.¹⁾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강사

- 1) John L. Gaddis (1987), “The Long Peace”, *The Long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ry Kaldor (1990), *The Imaginary War: Understanding the East-West Conflict*, Oxford, Blackwell.

그러나 ‘장기 평화’나 ‘상상의 전쟁’ 같은 개념은 냉전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설명하는 데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서구를 제외한 냉전의 ‘주변부’,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냉전 경험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64~1975)은 냉전기 발생한 대표적인 열전(熱戰)으로 익히 알려져 있거니와, 중동에서 발생한 무수한 무력 충돌,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다종 다양한 내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정부군과 ‘혁명군’ 사이에서 발발한 다수의 유격전 등 ‘차가운 전쟁’의 시대 ‘주변부’에서는 ‘뜨거운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권헌익이 주장한 바와 같이 냉전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형태의 충돌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중심부의 냉전이 “이념적 의견 일치”와 “실존적 불안”의 문화로 귀결되었다면, 주변부의 냉전은 잔인한 냉전과 예외적 형태의 정치폭력으로 채워졌다.²⁾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장기 평화’나 ‘상상의 전쟁’이 아닌 ‘실존하는 물리적 전쟁’을 치렀던 주변부의 경험을 시야에 놓지 않는 냉전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의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원제: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이하 『지구사』)는 주변부의 냉전 경험을 선구적으로 역사화한 저작이다. 베스타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은 냉전을 두 초강대국이 군사력과 전략적 통제를 둘러싸고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벌인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군사나 전략, 유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제3세계의 정치·사회적 발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냉전의 주변부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곧 냉전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과 직

2) 권헌익 지음, 이한중 옮김(2013),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p. 17.

결됨을 강조한다.³⁾ 2005년에 처음 나온 이 책은 1990년대 공산권 문서고 개방 이후 개디스를 필두로 한 일군의 ‘신전통주의’ 냉전 사가들이 소련과 스탈린의 책임을 강조하며 ‘승리주의적’ 해석을 쏟아내던 상황에서 “냉전에 대한 다극적 시각을 복원시킨”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았다.⁴⁾ 즉 『지구사』는 “누가 먼저 총을 쏘았고, 누가 더 악인이었다”는 식의 이분법 구도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냉전 종식 이후’ 냉전 연구의 장에 제3세계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사 연구의 선구적 저작인 『지구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구사』의 초판이 나온 지 올해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그 핵심적 문제의식은 냉전과 제3세계에 관심을 둔 다양한 분과 학문의 연구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새롭기보다는 익숙한 내용을 담았다고 느끼는 독자들도 없지는 않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를 통해 한국 학계와 사회가 냉전을 조망하는 보다 넓은 시야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책의 출간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지구사』의 대표 번역자인 옥창준으로부터 이 책의 번역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2016년경에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한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크다. 옥창

3)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옮김(2020),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에코리브르, p. 635.

4) 오경환(2018), 「냉전사 연구의 궤적: 정통주의에서 담론적 전회에 이르기까지」, 『사총』 95, p. 7. 오경환은 냉전사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정리하면서 공산권 문서고 개방 이후 냉전을 ‘스탈린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냉전의 기원 및 전개과정에서 소련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전통주의적’ 흐름이 대두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비패권국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다양한 문서고 간의 교차 검증이 확대되는 가운데 헌트(Hunt), 선즈화(沈志華)의 중국 연구, 베스타의 제3세계 연구 등이 등장하며 냉전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준을 비롯한 번역자들은 단순히 책의 본문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저자 베스타가 인용한 각종 1차 사료들의 출처를 하나 하나 다시 확인하고, 해당 자료가 웹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는 URL을 주석에 함께 표기하여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수고를 했다. 한국어 번역본으로 총 8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을 단순 번역하는 것만도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터, 책을 검토하며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번역자들의 노고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지구사』는 시간적으로는 미국이 건국되는 18세기 말부터 소련이 붕괴되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물론 18~19세기는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사(前史)로 간략히 다루고 주된 분석의 초점은 1차 대전이 끝나는 1920년대부터 1990년대에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장기간을 다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냉전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다양한 국가들을 분석한다. 책에서 다루는 시공간적 범위가 넓은 만큼 전체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고 그 핵심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1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미국·소련과 제3세계 관계의 발단 — 전개 — 절정 — 결말이라는 틀에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발단

1~3장은 미국·소련과 제3세계 관계의 ‘발단’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기존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보편주의적 감각을 갖고 세계에 접근했다. 미국과 소련은 공통적으로 그들 자신의 역사적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특정한 가치를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이 견지한 핵심 가치는 ‘자유’였다. 미국인들은 시민들이 향유하는 자유야말로 미국을 다른 국가와 구분해주는 핵심적 특성이라 믿었고, 자유라는 총론적 가치에 반집단주의,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에 대한 경계심, 과학 같은 각론적 가치들을 결합했다. 19세기 미국은 서부 개척과 해외 진출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국경 너머까지 확산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적 세계관은 2차 대전 이후 제3세계로의 진출을 정당화하는 근간이 되었고, 1950~60년대 근대화론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소련이 견지한 핵심 가치는 ‘정의’였다. 혁명 이전부터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유럽인들이 흔히 후진적이라고 여긴 러시아적 특성이 그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우월성을 지닌다고 믿었다. 이러한 ‘러시아 예외주의’는 1917년 소련 탄생 이후 ‘정의로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확산을 추구하는 국제주의적 사명과 결합되었다. 코민테른은 바로 이러한 소련의 국제주의적 사명을 상징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영도권의 확립을 위한 역사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고, 그 때문에 스탈린 시기 제3세계 정책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스탈린 사후 소련은 제3세계 혁명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은 제3세계 태동의 계기를 제공했다. 1차 대전을 거치며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배와 반(半) 식민지적 억압에 대항하는 저항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어진 2차 대전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붕괴를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다. 1945년 이후 곳곳에서 등장한 신생독립국은 1955년 반동회의를 통해 결정적으로 결집했다. 근대성에 대한 추구는 모든 신생 국가들이 추구한 것이었지만, 미국식의 자본주의 근대성을 추구할 것인지, 소련식의 사회주의 근대성을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지가 존재했다.

(2) 전개

4-5장은 미국이 1950~60년대에 수행한 각종 반혁명 작전과 쿠바혁명·베트남전쟁이 냉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3세계가 분명한 개념적 실체로 확립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적 흐름을 위협으로 인식했고,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비밀작전을 통해 반혁명과 정권전복을 꾀했다. 1953년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 축출, 1954년 과테말라에 대한 개입 등이 그 대표적 사례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소련과 연합하는 것이 확실한 선택지가 아니었던 탈식민 신생국가의 많은 정권이 급진화되었다. 이들은 미국이 대표하는 ‘제국주의적’ 개입에 저항한다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제3세계라는 공동의 정체성과 상호 연대를 구축했다. 미국의 개입이 오히려 제3세계라는 혁명과 저항의 주체를 구성해낸 것이다.

1960년대 쿠바혁명과 베트남전쟁은 제3세계의 혁명 운동에 커다란 영감을 제공했다. 쿠바와 베트남의 혁명 경험은 제3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에게는 커다란 자신감을 선사했고, 미국에게는 공산 진영과의 데탕트,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으로 대표되는 개입 축소 정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소련은 쿠바와 베트남의 성과를 지켜보며 적극적인 제3세계 개입정책을 본격화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시대의 개혁정책을 경험한 이들이 소련 지도부의 중심에 등장했고, 이들은 제3세계 해방운동의 급진화로 혁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 것은 아프리카, 아시아의 역사적 추세와 관련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었다. 소련 전문가들은 1960년대 제3세계에서 예상보다 빨리 민족 부르주아지가 등장한 사실을 근거로 제3세계 국가들이 기나긴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3) 절정

제3세계 개입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적극적·공격적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1970년대 미국과 소련 간의 제3세계 경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6~8장은 1970년대에 발생한 제3세계의 주요 혁명운동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다루는데, 각각 남부 아프리카 일대(앙골라,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지역, 중동(이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6장은 앙골라 내전을 중심으로 1970년대 남부 아프리카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개입 및 그것이 초래한 결과를 분석한다. 앙골라 내전에서 앙골라해방인민운동의 승리는 소련으로 하여금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열망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했다. 미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지역의 ‘경찰관’으로 삼아 혁명의 확산을 봉쇄하려 했지만,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을 고수한 남아공과의 동맹은 미국 내 흑인들의 운동과 맞물려 심각한 비판과 딜레마를 유발하기도 했다.

7장은 1970년대 후반 에티오피아 혁명을 중심으로 동아프리카 일대의 상황을 살핀다. 베스타는 에티오피아 혁명이 냉전기 아프리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장 중요한 변혁이었다고 주장한다. 1977~78년 에티오피아 — 소말리아 전쟁에서 소련은 에티오피아에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장비를 보급했다. 소련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반구의 전반적 정치 조류가 좌파로 돌아섰다고 인식하면서도 제3세계의 신생 급진 정권들이 불안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했다. 소련 지도부 일각에서는 ‘봉건적’ 군인들이 이끄는 제3세계의 군사정권들이 아래로부터의 계급운동을 통한 변혁 없이 사회주의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지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8장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이 등장하

며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전제가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역사적 맥락을 다룬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 혁명은 공산주의만이 미국의 힘에 맞서는 포괄적 이데올로기라는 전제를 무너뜨렸고, 소련 입장에서 이란 혁명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혁명 세력이 기존 질서를 타파한다는 혁명 공식을 뒤흔들었다. 197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민민주당 정권이 등장하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슬람주의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혁명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사 개입을 감행, 10년간에 걸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주의자들은 파키스탄과 연계했고, 미국은 이를 배후에서 지원했다.

흥미로운 것은 6~8장에서 언급된 잔혹한 무력 충돌의 사례들이 냉전의 양대 진영 간 ‘데탕트’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냉전의 중심부에서 양 진영이 타협과 공존의 길을 모색했다는 바로 그 시기에 주변부에서 내전과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홍석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 강대국들이 냉전의 충돌과 갈등을 비서구 지역으로 이전해온 역사적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⁵⁾

(4) 결말

9~10장은 1980년대 레이건 정권의 대소 공세 강화, 소련의 제3세계 철수와 냉전의 종언 속에서 제3세계가 정치적·경제적 개념으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한다. 레이건 정부는 소련과의 대립을 선악 구도 속에서 파악했고, 직접 개입보다는 저항 세력에 대한 은밀한 지원을 통해 소련을 압박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의 베트남’이 되었고, 1989년 고르바초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킨 것은 소련의 제3세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구적 상징이

5) 홍석륜(2015), 「냉전의 예외와 규칙: 냉전사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 『역사비평』 110, pp. 112-135.

되었다. 1960~70년대 붓물처럼 등장했던 제3세계의 급진 국가들은 계속되는 경제적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에 시달렸다. 결국 1980년대를 거치며 제3세계 개념은 파편화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사』가 다루는 내용의 폭이 무척 광범위한 만큼 필자가 베스타가 던진 질문과 문제의식을 얼마만큼 소화했는지 스스로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필자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이 책이 지닌 연구사적 의의를 거칠게나마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냉전 연구의 범위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크게 확장함으로써 냉전사 서술의 ‘탈중심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지구사』가 등장하기 이전 서구 주류 학계가 냉전을 다루는 시간적 범위는 주로 명시적인 미·소 대립이 존재한 1945~1980년대 말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베스타는 『지구사』를 통해 20세기 중후반의 사건·구도만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냉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1945년 이전의 식민주의라는 보다 장기적인 시간적 흐름 속에서 냉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스타가 결론에서 지적하듯이 “반식민주의라는 출발점을 공유했던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역사적 기획”은 제3세계를 사이에 둔 냉전적 경쟁을 수행하며 “옛 식민주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졌다.” 베스타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시각에서 보면 미·소 냉전은 “방법을 조금 달리한 식민주의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식민주의·탈식민이라는 긴 역사적 호흡 속에서 냉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시간적 확장과 더불어 냉전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확장한 것 또한 이 연구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베스타의 주장처럼 제3세계의 정치·사회적 발전이라는 문제가 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냉전의 핵심 주체 중 하나로서 남반구의 위상을 복원한 것은 『지구사』의 분명한 학적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대한 다국적 사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미국·소련과 제3세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포착했다는 것이다. 번역자들이 꼼꼼하게 정리해둔 참고문헌과 미주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베스타는 FRUS를 비롯한 미 국무부의 외교문서와 러시아 국립현대사문서고(RGANI)의 소련공산당 관련 자료들은 물론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외교문서, 이탈리아 공산당 관련 자료, 그리고 1980-90년대에 걸쳐 저자가 직접 인터뷰한 전직 외교관, 군인, 활동가의 구술 자료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아카이브의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활용했다. 이러한 폭넓은 자료 활용이 있었기에 ‘지구적’ 차원의 냉전사를 한 권의 책으로 쓴다는 ‘무모한’ 계획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사료에 대한 천착이 가능했던 것은 베스타 본인의 개인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소련의 이웃국가이자 자본주의 진영의 일원이었던 노르웨이 출신으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모잠비크,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 ‘트랜스내셔널’한 배경이 베스타로 하여금 냉전에 대한 다국적 시각을 견지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⁶⁾

셋째, 냉전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상호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베스타가 미국을 ‘자유의 제국’으로, 소련을 ‘정의의 제국’으로 규정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지구사』는 한 국가가 견지한 이념, 이론, 자기인식이 냉전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냉전기 소련의 제3세계 정책이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 국가 발전단계론 해석과 밀접하게 연동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부분은 특히 인상적이다.

6) 『지구사』 후반부에 실린 ‘옮긴이의 글’에 베스타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서술을 참조

『지구사』는 제3세계의 혁명 역량과 체제 발전 단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평가가 소련의 정책 결정에 핵심적 요인 중 하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냉전기 강대국의 제3세계 정책이 국가간 역관계에 기반한 현실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이념, 자기 인식과 같은 관념적 요소에 의해 추동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함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이 『지구사』가 냉전 연구의 장에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전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냉전 경험을 포괄하겠다는 이 책의 기본적인 지적 기획이 얼마만큼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들도 없지 않다.

첫째로, 『지구사』가 추구한 냉전 연구의 ‘탈중심화’가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지를 좀 더 면밀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구사』가 냉전 연구의 범위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크게 확장함으로써 서구·강대국 중심의 기존 냉전사 서술을 보다 다기화(多岐化)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제3세계를 미·소 두 강대국의 개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로 단순화한 측면이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보고 싶다. 『지구사』는 제1세계와 제2세계의 중심국가들이 제3세계에 끼친 영향력의 전반적 상은 탁월하게 잘 보여주었지만, 역으로 제3세계가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나 냉전 인식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조금은 추상적이거나 소략하다는 인상도 없지 않다.

『지구사』가 제3세계를 향한 1세계와 2세계의 개입을 주로 검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3세계 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의 주변부끼리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다소 취약해진 측면도 없지 않다. 제3세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은 1세계, 2세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연대, 협력, 갈등하는 복잡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것이 또한 냉전 전개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

렵다. 주변부 국가들끼리의 복잡다기한 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냉전 연구의 탈중심화가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베스타가 『지구사』에서 시도한 냉전 연구의 탈중심화 기획은 일정한 한계를 내포한 것이 아닐까 한다.

둘째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 경험을 ‘냉전의 지구사’ 속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한국현대사를 공부하는 필자가 『지구사』에서 가장 눈여겨보았던 부분 중의 하나는 베스타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냉전사에 대한 분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스타는 서론에서 ‘제3세계’를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범유럽’국가들의 식민지나 반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 한정했고, 또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같은 주제는 “냉전과 구분 가능한 다른 주제”로서 “그 자체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을 『지구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이에 따르면 한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탈식민’ 국가군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술의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그러나 1945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과연 냉전과 구분 가능한 것일 수 있을까? 한국의 경제성장이 반공보루 구축을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에 많은 부분 힘입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자본주의·사회주의 양 진영의 정면 충돌로 발생한 한국전쟁의 유산인 정전체제가 여전히 한반도 주변 질서를 규정하는 기본 토대로 존재한다.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일본 내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탈식민과 냉전의 교차 속에

7) 일례로 김도민은 최근 발표한 학위논문에서 1940~60년대 남한과 북한의 ‘중립국 외교’를 소재로 주변부 국가들 간의 관계 맺음이 냉전과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었는지 분석했다. 김도민(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 정체성을 부정당한 마이너리티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즉 20세기 중후반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적 변화는 냉전이라는 맥락을 분리해놓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베스타의 시각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일종의 ‘예외적 존재’인 듯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식민지 해방 후 미국식 발전 모델을 채택하여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스타가 구축한 제3세계 냉전의 역사상에는 이질적인 존재일 수 있다.⁸⁾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 또한 지구적으로 전개된 냉전의 영향을 결코 피할 수 없었고, 오히려 냉전은 이 지역의 정치·경제 체제와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베스타가 그렇게 했듯이 탈식민국가, 제3세계 냉전사의 ‘예외’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설명의 틀을 제시할 것인지를 두고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본질적 성격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가장 사각지대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냉전의 본질과 맨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화려한 조명’을 감싸 안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인 제3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제3세계를 냉전사의 주요 주체로 위치 지은 베스타의 『지구사』는 냉전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거쳐 가야할 필요가 있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구사』는 냉전사 연구에 앞으로 입문하려는 독자들에게는 향후의 연구를 위한 좋은 안내서와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냉전에 관한 자료와 논문을 부단히 찾아 헤매는 연구자들에게는 시야를 틔워주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8) 베스타는 결론에서 한국과 대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제3세계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개입한 결과는 진정으로 암울했다. ... 지금까지 미국이 생각했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안정적 조합은 남한과 대만이라는 두 반쪽 국가에서만 가능했으며, 1945년부터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약 30개국에 이르는 나라에서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2020), 앞의 책, pp. 647-648.

참고문헌

- 권현의 지음, 이한중 옮김(2013),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 김도민(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경환(2018), 「냉전사 연구의 궤적: 정통주의에서 담론적 전회에 이르기까지」, 『사총』 95.
-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옮김(2020),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에코리브르.
- 홍석률(2015), 「냉전의 예외와 규칙: 냉전사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 『역사비평』 110.
- Gaddis, J. L. (1987), “The Long Peace”, *The Long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ldor, M. (1990), *The Imaginary War: Understanding the East-West Conflict*, Oxford, Blackwell.